

자기고양 현상에 대한 조절변인으로서 자존감

정 욱 한규석

전남대학교

본 연구는 자기고양적 행위에 관한 문화비교적 차이가 국내에서 이론적으로 재현될 수 있는지, 아울러 한국인의 자기고양적 행위 양상은 어떠한지를 보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Heine, Kitayama, Lehman, Takata, Ide, Leung, & Matsumoto, 2001)에서 사용된 실험절차를 차용한 복제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존감 수준을 변인으로 도입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Rosenberg(1965) 척도를 사용하여 자존감이 높은 사람(HSE)과 낮은 사람(LSE)을 뽑아서 창의성검사(K-RAT)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수행결과를 성공과 실패로 처리하여 알려 주었다. 이어지는 상황에서 난이도가 다른 K-RAT 과제를 수행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과제지속시간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자존감 수준과 과제수행 조건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HSE 사람들은 실패조건에서 보다 성공조건에서 현저히 과제에 매달리는 시간이 길게 나타나 자기고양적 행위양상을 뚜렷이 보였으나, LSE 사람들은 처치조건간의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두 유형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합한 결과를 Heine 등(2001)의 연구결과와 비교한 결과 일본인과 달리 캐나다인들의 반응양상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HSE 사람들의 특징, 자존감의 문화적 기반 및 한국사회의 분석에 대한 연구문제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존감, 자기고양, 자기개념, 문화심리, 문화비교심리, K-RAT, 조절변인

일상에서의 자존감

우리의 일상엔 자존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종의 작은 전쟁의 연속이다.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탓에 일이 잘 된 경우에 사람들은 자존감이 고양되는 느낌을 받고, 만족을 느낀다. 그러나 하는 일이 능력에 부치거나,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가치 평가에서 불만을 느끼며 자존감을 상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일을 중도에 포기할 것인지, 자존감이 실추되는 경험에도 불구하고 일을 끝까지 진행시켜야

할 것인지를 고민한다.

심리학자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결과로 자존감을 정의한다(Coopersmith, 1967). 수많은 연구들에서 자존감이 높은(High self-esteem : HSE) 사람들이 낮은 사람(Low self-esteem : LSE)보다 현실에 적응을 잘 하며, 높은 성취 및 정신건강을 보이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ubois & Flay, 2004; Pyszczynski, Greenberg, Solomon, Arndt, & Schimel, 2004; Taylor & Brown, 1988). 높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

본 논문은 정욱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그는 현재 전남대학교 박사과정에 있으며, 한규석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하고 있음.

교신저자 : 한규석, (500-757)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62) 530-2654,

E-mail : ghan@jnu.ac.kr

에 적응을 잘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계학적인 평균보다는 높게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각하고 있어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자존감이 높게 유지되는 기제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잘 하는 영역을 자기평가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잘 못하는 영역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저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Rosenberg, 1979). 아울러 사회생활의 복잡성 탓에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영역(예, 창의성이나 지능)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정의하기가 애매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서, 얼마든지 사람들은 이들 영역에서 자신을 좋게 평가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다(Dunning, 1995). 귀인의 측면에서도 사람들은 성공한 경우에는 자기 탓을 하고, 실패한 경우에는 상황 탓을 함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실패한 경우에는 자신의 실패를 확인시켜주는 정보를 회피하며, 하향적 비교를 통해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Pyszczynski, Greenberg, & LaPrelle, 1985; Taylor & Lobel, 1989). 아울러, 사람들은 자존감이 위협받는 환경상황에서는 그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피함으로써 자존감을 보호하기도 한다. 학업성적이 부진한 많은 혹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학교를 떠남으로써 자존감이 실추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도 한 탓이다(Sabat, Fath, Moghaddam, & Harre, 1999; Steele, 1988).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관련된 현실에 대해서 현실을 긍정적으로 왜곡하여 지각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를 자기고양 편향(self-enhancing bias)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강한 자기고양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Greenwald, 1980; Taylor & Brown, 1994). 즉 자기관련 정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지각하여 자존감을 보호하고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려는 것이다. 이 편향성은 자기 존중감이 낮거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비해 정신적으로 건강한 일반 사람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Taylor & Brown, 1994).

비록 자기고양 현상이 그 적응적 가치 때문에 보편성을 지닌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도, 그 양상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평

가가 부정적이며, 이들이 자기고양적 사고나 행위를 보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화비교적 시각에서 바라본 자기고양적 현상

최근에 문화비교적 관점에서 수행된 많은 문화비교 연구들은 서구에서 발견된 인간의 심리적 경향성 중 많은 것이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 사회에 국한되는 특수한 경향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Fiske,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 Triandis(1988)가 정리한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 이론 및 Markus와 Kitayama(1991, 1994)의 집단적 자아구성 (Collective self-construal) 이론은 이러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이론들이다. 이들 이론은 문화권이 다른 사회 및 그 성원들이 보이는 다양한 가치관, 사회적 지각, 정서, 동기, 관습, 제도 등의 차이점을 이해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틀로서 사용되고 있다(조공호, 1996; 한규석, 1991; Triandis, 1995).

자기고양 편향과 관련하여 여러 문화비교 연구들은, 이 현상이 동양인보다 북미인들에게서 두드러진 현상임을 보여준다. 즉, 개인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유능하게 여기며, 낙관적이며, 자신의 상황통제력을 과대하게 지각하는 현상으로,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Heine, Kitayama, & Lehman, 2001). 예를 들어, Rosenberg(1965)가 개발하여 널리 쓰이고 있는 자존감척도를 이용하여 캐나다인과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연구들을 통합분석한 결과는 캐나다인의 경우에 자존감이 높은 쪽으로 심한 편포현상을 보여 오직 7%만의 사람들이 중간점수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에 일본인의 경우에 중간점수를 중심으로 좌우로 균형 있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eine et al., 1999).

이러한 서구인들의 자기고양 편향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해석으로 자기(自己, Self)의 구성적 성격에서 동서양을 비교한 Markus와 Kitayama(1991, 1994)의 집단적 자아구성 이론이 널리 수용되고 있다. 이 이론은 자아의 구성적 특성이 개별적인 개체(독립적 자아)의 특징을 많이 반영하는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적인(상호의존적 자아) 특징을 많이 반영하는지를 파악하여 문화권에 다

라 달리 작용하는 인지, 동기, 정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분석틀은 문화간 비교에서 유효할 뿐 아니라 개인차를 분석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한 자아관이 일반적인 하나의 문화 내에서도 비전형적인 자아관이 우세한 하위집단이나 개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Triandis, 1989, 1995)은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에 대한 견해차로서 문화를 대별하고 있다. 즉 개인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개인주의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좋은 점, 잘하는 점, 독특성에 민감하게 되어, 긍정적인 자기상과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추구하게 된다. 자기고양 편향이 서구 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의 목표 및 타인들과 맺는 관계의 화목을 중요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직분과 역할, 다른 성원への 배려와 화목 및 그 유지를 강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내집단원에게 수용되는 자기의 모습에 민감하게 되어, 긍정적인 자기상이나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추구하고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자기의 모자란 측면을 찾아 이를 개선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다(조공호, 1997; Heine & Lehman, 1995, 1997a, 1997b; Kitayama & Markus, 1994; 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kit, 1997). 그래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고양의 동기가 작용하기 보다는 자기개선(self-improving)의 동기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의 문화차이를 보여주는 한 연구(Heine, Kitayama, Lehman, Takata, Ide, Leung, & Matsumoto, 2001)는 개인주의 문화권인 캐나다 대학생들과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일본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뒤 피드백을 조작하여 제공하였다. 그 후 난이도가 달라진 실험과제에 매달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캐나다 학생들은 실험과제에 성공한 조건에서 과제 수행시간이 실패조건에서 보다 길었으나, 일본인은 이와 반대로 실패 조건에서 과제 수행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캐나다 대학생들의 경우에 자신이 성공한 과제에서 자존감의 부양을 느끼고 이 자존감을

확인하고 향유하려는 동기가 작용하는 반면에, 일본 대학생들의 경우에 자신이 실패한 과제에서 자괴심을 느끼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시키려는 동기가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이 같은 문화적 특색이 만성적으로 작용한다면 캐나다를 포함한 구미인들에게서 일본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자존감의 강도를 측정하여 문화간 비교를 행한 연구들은 구미인들이 동아시아인들에 비해서 자존감이 높은 양상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데(Bond & Cheung, 1983; Stigler, Smith, & Mao, 1985) 그 문화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서구인들이 보이는 또 하나의 자기관련 현상인 독특성 착각 편향(False-uniqueness bias; 본인을 남들과 다르다고 여기는 경향)도 이해될 수 있다. 이 현상은 구미에서는 두드러지지만, 일본인들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 되었으며(Markus & Kitayama, 1991). 일본인들은 상당히 성공적인 업적을 이룬 다음에도 자기 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편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Heine & Lehman, 1997b).

자기고양적 동기의 작용이 문화특수적일 수 있다는 이 같은 주장과 그 연구들에 대하여 문화보편적인 시각에서 다른 증거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문화비교심리학회지(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별호(34권 5호)가 2003년에 간행되기도 하였다. 문화보편성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룬 Brown과 Kobayashi(2002, study1)는 자신, 친한 친구, 자기대학의 다른 학생들을 8가지 특질에 있어서 평가하도록 하고, 각 특질의 중요성을 매기게 한 결과 일본학생들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특질에서는 자기고양편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urman(2001, 2003)은 겸손성이라는 문화적 변인을 통제하였을 경우에 자기고양편향은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유사하게 Kudo와 Numazaki(2003)는 겸손하게 보일 필요가 없는 의명적인 상황에서는 일본인도 과제에 대한 성패의 이유를 대는 것에서 자기고양적 귀인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 같은 상반된 증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고양심리 및 자기반성(self-criticism)이 지니는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적대적인 경쟁상황에서 자기고양은 사기를 북돋고, 호승심을 지킬 수 있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상대방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관심의 초점일 경우에는 자기고양은 오히려 반발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기반성은 자신을 낮추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친화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Takata(2003)는 일본인들이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는 상대(우치 관계)와 맞서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기반성적인 양상을 보이지만, 자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소토 관계)에 맞서서 자기고양적 양상을 보이는 것을 실험과제를 통해 보았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자기고양 편향이 특정문화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어느 문화권에서건 필요한 여건에서는 나타날 수 있으며, 문화권에 따라 일상적인 교류 여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화 특수적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문화비교 연구에서 단일 문화권 내의 연구가 지닌 의미

문화비교심리학의 연구들은 문화를 독립변인으로 간주하여 두 가지 이상의 문화권에서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측정치를 구한다. 이들의 차이를 독립변인인 문화의 차이가 초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관행은 문화가 조작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찰치의 차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이 지적되었다(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1992; Herman & Kempen, 1998). 더욱이 문화는 복합적인 개념이므로 두 나라의 어떠한 심리적 변인의 차이가 종속관찰치의 차이와 관련 있는 것인지를 설득력 있게 보이기가 힘들다. 즉 종속변인의 차이에 주로 관여하는 다양한 변인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관심변인과는 다른 가외적 변인의 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문화권의 차이는 인과적인 차이가 아니라 상관적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으로써 동일 문화권 내에서의 연구가 이용되고 있다(자세한 논의를 위해 조금호, 2002 참조바람). 즉 문화비교 연구들에서 종속적 관찰치의 변화에 책임 있다고 여겨지는 문화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심리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취하여 동일 문화권에서 검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집단주의 문화권의 집단중심적 사고 특징을 가

장 잘 보이는 성향을 지니는 사람들과 개인중심적 사고 특징을 잘 보이는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구분하여 이들간의 차이가 문화비교 이론이 상정하는 문화간 차이를 반영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문화비교 심리학자인 Triandis (1989)는 문화간의 차이에 대응하는 개인심리의 차이를 구별하는 용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 문화차에 해당하는 홀로성향-두레성향(ideocentric-allocentrics)의 개인차 연구를 제시하였다. 심리학자들이 문화의 차이에 대한 관심보다는 심리적 변인들의 관계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문화라는 거시적인 변인의 작용을 심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문화심리학에서 다루는 개념들의 관계를 문화권 내에서 다루는 연구가 문화차이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조금호, 2002; 한규석, 2002). 문화차이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으로 제시된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Triandis, 1989, 1995)이 심리학자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크게 환기시켰지만 보다 본격적인 연구를 촉발시킨 것은 문화를 자아개념으로 분석한 집단적 자아구성 이론(Markus & Kitayama, 1991)이 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본 연구는 Heine 등(2001)이 캐나다와 일본의 문화비교 연구에서 보여준 자기고양 현상에서의 문화간 차이에 착안하여 자존감이 자기고양 현상의 조절변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즉 캐나다인들이 일본인에 비해서 자존감이 높은 양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는 자기고양적 행위는 HSE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LSE 사람들은 자기고양적 양상을 보이지 않거나, 훨씬 약하게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LSE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보인 것처럼 자기개선적 행위 양상을 보일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 같은 연구는 두 가지 관심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문화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심리적 변인들의 관계가 단일 문화권에서 동일한 기제로 작동되는지를 보는 것은 문화비교연구의 이론을 정세화(精細化)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이

같은 연구를 진행시켜 왔다(이누미야·최일호·윤덕환·서동효·한성열, 1999; 조궁호, 1999, 2000, 2002, 2003; 조궁호·김은진, 2001; 조궁호·명정완, 2001; Han & Park, 1995). 본 연구에서는 Heine 등(2001)의 절차를 따라 과제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변화시켜 제시하고서 HSE와 LSE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양상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둘째, Heine 등(2001)의 연구절차에서 나타난 동서의 문화차이 현상이 일본과 같이 집단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한국의 대학생들에게서 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다. 비록 대부분의 문화비교 연구자들이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을 크게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하지만 이들 국가간에도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보인 현상이 한국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속단할 수 없는 검증의 대상이 된다. 몇 가지 예로, 자기고양의 한 양태인 비현실적 낙관론(unrealistic optimism)을 문화비교적 방법으로 보여준 Heine와 Lehman(1995)의 연구를 국내에서 이누미야 등(1999)이 비교한 연구 결과는 한국인이 일본인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보다는 오히려 캐나다인과 비슷한 수준의 비현실적 낙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인도인과 미국인의 귀인양상을 비교한 연구(Miller, 1984)를 똑같은 절차로 국내에서 취한 연구결과(공수자·한규석, 1996)는 한국인이 미국인과 같은 성향 귀인 양상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이 같은 결과들은 문화비교심리학의 연구들이 취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현상의 발현들이 국가마다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예측해 내지는 못하고 있음을 뜻하며 문화비교심리학 이론의 정세화를 위해서는 동일 문화권내의 국가들 간의 비교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실험 설계

자존감(높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과 과제수행(성공, 실패)의 2×2 이요인 집단간 균형설계를 취하였다.

대상자

전남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 계절학기 수강생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120명에게, 실험신청서와 자존감 척도(Rosenberg, 1965)를 수업장면에서 단체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 중 자존감 점수가 중간 집단인 70명을 배제한 HSE와 LSE 각 25명이 개인별로 본 실험에 참가하였다. 두 처치 조건에 각 집단에서 12명씩 배정되도록 무선 할당하였고, 나머지 2명은 무작위로 데이터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최종적으로 남자 14명과 여자 34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 도구 및 절차

① K-RAT(Korean Remote Association Test)

본 연구에서는 과제수행의 성공, 실패 피드백을 조작하기 위한 실험과제로서 단어연상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Heine 등(2001)이 사용한 연상검사(RAT) 방식을 모형으로 한국판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3개의 단어를 주고 단어들 간의 관련성을 찾아내는 것으로 참여자들에게 이 검사가 사람들의 창의력을 측정하는 도구라고 설명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여러 문항이 캐나다 문화나, 일본 문화에 통용되는 속담이나 표현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새롭게 51문항을 만들어, 이를 본 실험에 참가하지 않는 계절학기 수강생 80명에게 시행하였다. 그 결과, 각 문항에 대한 정답율을 기준으로 3종류의 난이도가 다른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정답율을 70% 정도로 구성하였고, 두 번째는 50%로, 세 번째는 30% 정도로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예컨대, ‘개구리-황사-아지랑이’는 봄(春)을, ‘UN-전쟁-비둘기’는 평화, ‘대박-돼지-숫자’는 복권을 정답으로 찾게 하였다. 가장 어려운 질문지에는 정답이 나오기 어려운 항목들이 삽입되었다.

② 자존감(Self-esteem)검사 도구

자존감 측정을 위해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1965)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질문지는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나 자신이 만족스럽다’ 등과 같이 정적인 방향으로 묻는 질문 5개와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내가 실패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등과 같은 부적인 방향으로 묻는 질문 5개로 구성되어 있다. 부적 방향의 문항들은 역산하여 10문항의 총합을 자존감의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자존

감이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75로 나타났다.

③ 문화성향(Self-construal)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홀로(개인중심) 성향-두레(집단중심) 성향의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Singelis 등(1995)이 제작한 자아구성 척도를 김기범(1996)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번역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2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두레성향을 위한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1이었고, 홀로 성향의 신뢰도 계수는 .70이었다.

④ 자기평가 문항

본 연구에서는 10가지 특성을 물어보는 Heine 등(2001)의 자기평가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자기평가 문항은 창의력, 협동심, 독립심, 유머감각, 매력적인 용모, 타인에 대한 이해심, 운동선수 같은 체력조건, 노력을 많이 하는 정도, 의타심,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정도에 대해서 같은 전남대학교 학생이면서, 같은 또래이고, 성(sex)이 같은 학생들 중 무선적으로 뽑힌 100명 중에서 자기의 서열을 평가하게 하였다. 숫자가 작을수록 자기평가가 높은 것이다.

⑤ 사회적 바람직성 검사 도구

실험실이라는 상황에서 과제에 매달리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20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Paulhus, 1984)를 번역하여 7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0이었다.

실험실 장면

큰 책상위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두 종류의 K-RAT 검사지, 그리고 실험 참가자봉투 라고 적힌 봉투 3장이 놓여 있으며, 전체 실험 순서와 시간을 명시한 책상용 차트와, 문제 발생시 사용하는 초인종을 배치하였다. 폐쇄회로 카메라는 돌출음으로 천장에 고정되었고, 지시문을 들려주는 CD 플레이어가 설치되어 있다. 옆방에서 실험자는 모니터링을 하고 피험자의 행동을

녹화하였다.

실험 절차

실험은 개인별로 시행되었고,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50분 내외였다

① 실험실에 입실한 개인피험자에게 이 연구의 목적은 감성지수와 창의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체 실험 내용에 대해서 참가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실험 시에 이해가 안가거나 질문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초인종을 직접 누르게 실습을 하고 옆방에서 나는 소리를 직접 듣게 해주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실험자는 피험자의 처치 조건을 무작위로 할당하기 위해 창의성검사로 제시된 두 종류의 K-RAT(쉬운 과제-성공피드백, 어려운 과제-실패피드백)를 미리 섞어 놓은 봉투 속에서 한 개를 꺼내어 피험자에게 나눠주고 퇴장하였다.

② K-RAT 과제 시작 후 17분이 지나면 피험자들은 녹음된 음성지시문¹⁾을 듣고 책상위의 봉투에서 K-RAT 답안지와 같은 학교 다른 학생들의 과제 수행 결과 분도도를 꺼내 스스로 채점하게 하고 본인의 점수 및 차트상의 위치(서열)를 기입하게 한 후, 피험자 봉투에 넣고 다음 지시문을 기다리게 하였다.

③ 지시문에 따라 실험의 다음 단계인 감성지수에 대한 검사를 하는 도중에 컴퓨터 기능 장애를 발생시키고, 초인종을 눌러 실험자에게 도움을 청하게 한다. 실험자는 피험자 방으로 곧 들어와 컴퓨터를 점검하면서 매우 당황해하는 행동²⁾을 취하고, 소프트웨어를 얻어다 다시 설치하는 동안 K-RAT 검사(중간 정도 수준)를 주면서

1) 실험자와 피험자와의 면대면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녹음한 음성 지시문을 사용하였고 첫 번째 음성지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로써 첫 번째 검사를 마치했습니다. 책상 위에 답안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창의력검사가 A이면 답안지 A를, B이면 답안지 B를 선택하여 본인 스스로 채점하고 맞은 개수와 백분율을 기록하십시오”

2) 피험자가 도움을 청하면 실험자는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점검한다. 이 때 미리 임의로 EQ-Test 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실행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계속 ***.dll 파일을 찾을 수 없어 실행할 수 없다는 경고창이 뜨도록 설정해 놓았다. 이 때 실험자는 매우 당황해하는 행동을 취하고 다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겠다고 말한다.

다시 해보라고 하고 실험실을 빠져 나온다. 이 때 실험자는 K-RAT 검사는 실험에 포함된 과제가 아니므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창의력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풀어보라고 권하였고 모든 피험자들이 응하였다.

④ 이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은 최고 15분이었으며, 이 과정을 녹화하였다. 주된 종속변인은 과제수행 지속시간이었으며, 조건 배경을 모르는 대학원생이 녹화 테이프를 보면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시간을 초단위로 측정하였다³⁾. 15분이 지나 실험실에 입실한 실험자는 담당자가 없어서 소프트웨어를 얻을 수 없으므로 실험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하고 실험후 질문지를 제시하였다.

⑤ 실험후 질문지에 감성지수 검사에 관한 문항을 실험자가 직접 가리키며 이들 문항은 답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고⁴⁾ 퇴실하였다. 실험후 질문지에는 수행했던 K-RAT과제를 본인은 몇 개나 정확하게 수행했는지, 이 K-RAT가 창의력을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 K-RAT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과제 수행을 하고 난 후의 느낌은 어떤지, 그리고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창의력이 얼마나 중요하는가를 물어보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실험후 질문지가 끝나면 실험자가 등장하여 실험의 내용을 설명하고,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발설하지 말기를 당부하였다.

결 과

조작효과 검증

실험조건의 조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피험자들이 수행한 K-RAT과제에 대해 6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분명히 그렇다)로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재미있었는지, 해 볼 만 했는지, 시시했는지 등을 물어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3) 15분 이상 문제에 매달리는 피험자는 실험자가 입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제풀이가 중지 되었다. 확연하게 문제풀이 동작이 구분되는 피험자의 경우에는 시간측정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동작이 애매한 경우는 전체 녹화 영상을 보고 전체 시간에서 문제풀이 행동을 하지 않은 시간을 빼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Heine 등(2001)의 시간측정 방식하고도 동일한 방식이다.

4) 감성지수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이 우발적인 사고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임.

표 1. K-RAT 과제에 대한 조작 효과 검증(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	조 건			F (1, 46)
	성 공	실 패	총 합	
RAT과제는 해볼만 했다	4.96 (0.46)	4.00 (1.32)	4.48 (1.09)	11.28**
RAT과제는 쉬웠다	3.67 (0.82)	2.13 (1.08)	2.90 (1.23)	31.27***
RAT과제는 어려웠다	3.08 (0.88)	4.67 (1.09)	3.88 (1.27)	30.64***

* $p<.05$, ** $p<.01$, *** $p<.001$

과제의 난이도를 물어보는 문항에서 성공 피드백을 받은 집단이 실패 피드백을 받은 집단보다 과제를 쉬웠다고 보고한 반면 실패집단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반대로 과제가 어려웠나를 물어보는 문항에서 성공 집단은 어렵지 않은 편이라고 보고하였고, 실패집단은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과제수행에 대한 조작은 의도했던 대로 이루어졌다.

지속시간 검증

표 2는 각 집단별 두 번째 K-RAT 지속시간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성공 피드백 집단은 평균 744(SD 183)초, 실패 피드백 집단은 607(SD 164)초였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집단의 지속시간은 627(SD 182)초, 자존감이 낮은 집단의 지속시간은 679(SD 193)초로 나타났다.

자존감 고저와 성공/실패 피드백에 따라 지속시간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2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속시간에 대한 피드백 조건의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44)=8.01$ $p<.007$. 즉 성공 피드백을 받은 집단이 실패 피드백을 받은 집단보다 과제에

표 2. 실험참가자들의 자존감 고저와 피드백에 따른 지속시간 평균(SD)

	성 공	실 패	전 체
낮은 자존감	690.25 (209.78)	668.00 (183.59)	679.12 (193.13)
높은 자존감	798.92 (142.16)	546.58 (122.60)	672.75 (182.93)
전 체	744.58 (183.83)	607.29 (164.79)	675.94 (18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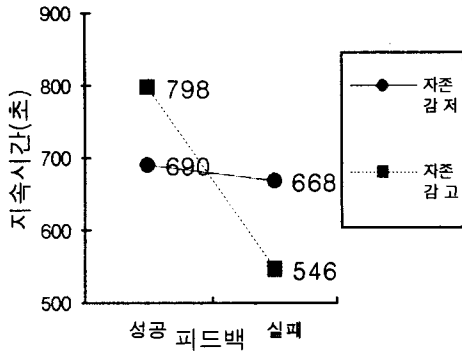


그림 1. 자존감과 수행조건간의 상호작용

더 오래 매달리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자존감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상호작용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44)=5.62$ $p<.022$. 그림 1은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조건별 평균치를 도작한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 성공 피드백을 받은 피험자는 2차 과제수행 시간(798초)이 길었다. 그러나 자존감은 높지만, 실패 피드백을 받은 피험자는 2차 과제수행 시간(546초)이 짧았다. 자존감이 높은 집단의 양상을 살펴보면 자기가 못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 발전 시키려는 자기고양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집단은 피드백 조건에 관계없이 비슷한 지속시간(성공 피드백 690초, 실패 피드백 668초)을 나타냈다.

자기평가 문항의 분석

자존감과 자기평가에 대한 분석

참가자들이 자신을 얼마나 고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창의력, 협동심, 독립심, 유머감각, 용모, 타인에 대한 이해심, 체력조건, 의타심, 다른 사람과 어울림 등의 특성에 대해서, 자신을 같은 또래 집단 학생 100명 가운데 몇 번째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수를 매기게 하였다. 그 결과의 평균이 자존감 고저 두 집단별로 구분되어 표 3에 제시되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한 백분위 등수를 변량분석한 결과도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각 항목에 대해서 자신에 대하여 고양적(낮은 숫자로 나타남)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주의 사회에서 중시하는 능력과 개별성 특

표 3. 자기서열 평가의 자존감 고저 집단간 차이

	높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	F (1, 46)
창 의 력	43.33(26.67)	52.96(20.38)	1.97
독 립 심	32.33(26.96)	52.92(18.75)	9.43**
유머감각	26.17(22.45)	52.92(25.92)	14.60***
용 모	40.67(22.69)	54.33(20.32)	4.83*
체력조건	65.00(24.27)	63.75(25.65)	0.03
이 해 심	30.63(25.19)	41.08(23.68)	2.19
어 울 림	31.88(25.83)	48.71(22.29)	5.84*
의 타 심	60.96(22.90)	54.29(26.02)	0.89
협 동 심	35.83(29.49)	45.54(20.59)	1.75

숫자는 등수이므로 낮은 숫자일수록 높은 평가를 의미함.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 $p<.05$, *** $p<.001$

성 영역(독립심, 유머감각, 용모)에서는 자존감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 중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어울림 항목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능력과 개별성의 영역에서 자기의 독특성을 과대 지각함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문화성향과 자기평가에 대한 분석

문화성향과 자기평가 문항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4

표 4. 자기평가 서열의 문화성향별 고저집단간 차이

	홀 로 성 향		두 레 성 향	
	고	저	고	저
창의력	38.70 (22.23)	56.84** (22.56)	45.18 (24.73)	50.65 (23.52)
독립심	30.65 (23.48)	53.64*** (21.82)	33.73 (24.99)	50.15* (23.28)
유머감각	30.43 (24.81)	47.92* (27.72)	37.14 (29.63)	41.58 (26.05)
용모	38.30 (24.23)	55.96** (17.00)	45.95 (25.61)	48.81 (19.71)
체력조건	66.96 (23.68)	62.00 (25.87)	71.36 (21.61)	58.46 (26.00)
이해심	27.96 (26.99)	43.12* (20.44)	28.45 (27.76)	42.12 (20.40)
어울림	32.26 (26.16)	47.68* (22.62)	37.64 (27.31)	42.54 (23.86)
의타심	64.61 (21.72)	51.20 (25.52)	60.27 (28.00)	55.38 (21.36)
협동심	34.96 (27.14)	45.96 (23.48)	35.68 (29.63)	44.92 (21.39)

숫자는 등수이므로 낮은 숫자일수록 높은 평가를 의미함.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 $p<.05$, ** $p<.01$, *** $p<.001$

는 홀로성향 고저집단과 두레성향 고저집단에서 자기평가 백분위를 항목별로 제시한 결과이다. 각 성향별로 고저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t 검증하였다. 홀로성향자의 결과를 살펴보면 6개 항목(창의력, 독립심, 유머감각, 용모, 이해심, 어울림)에서 유의하였다. 반면, 두레성향자는 1개 항목(독립심)에서만 유의하였다. 홀로성향자의 결과는 자존감 고저에 따른 평가 양상과 비슷한 결과이다. 문화성향과 자존감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홀로성향과 자존감과는 강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54, p<.001$). 그러나 두레성향과 자존감과는 상관이 없었다($r=.11, n.s.$).

논 의

본 연구는 두 가지 관심을 갖고 수행되었다. 첫째는 자기고양 현상과 관련된 문화비교 연구의 결과에 착안하여, 자존감이 자기고양 현상의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는 한국인의 과제수행 양상이 일본인과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Heine 등(2001)이 캐나다인과 일본인의 과제 수행 행동을 비교하기 위해 채택한 실험절차를 복제하여 국내 대학생에게서 자존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자존감은 많은 연구들에서 쓰이고 있는 자존감 척도(Rosenberg, 196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기고양 현상의 조절변인으로서 자존감

본 연구 결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HSE)들은 성공한 조건에서의 과제 수행시간이 실패한 조건에서 보다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LSE)들은 실험 조건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자존감이 자기고양 현상의 조절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HSE 사람들이 보인 결과는 Heine 등(2001)의 문화비교연구에서 나타난 캐나다인의 양상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 양상은 HSE 사람들이 자기고양적 양상을 보인다는 기존의 여러 연구들(Crocker & Park, 2004; Dubois & Flay, 2004; Kobayashi & Brown, 2003; Taylor & Brown, 1988)이 예견하는 양상이며, 문화비교적 연구들에서 자존감 고저의 문화차이가 자기고양적 현상의 문화차이와 정적으로 연관되었음을 보이는 결과를 지지해 주

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도 HSE 사람들은 대부분의 특성에서 LSE 사람들보다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 같은 자기고양적 동기가 높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LSE 사람들이 보인 양상은 일본인들이 보인 양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LSE 사람들의 과제수행은 성공-실패의 두 조건 간에 별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그림 1). 오히려 미약하지만 나타난 양상은 자기고양적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최근의 한 연구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즉 미국과 일본의 대학생 중에서 HSE와 LSE를 뽑아 특정 형용사를 제시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여 비교한 연구는 자기고양 편향이 미국 대학생(HSE와 LSE)은 물론 일본의 HSE 사람들에게서도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임을 보인 바 있다(Kobayashi & Brown, 2003). 그러나 일본의 LSE 사람들은 본 연구에서처럼 미미하게 자기고양 양상을 보이고 있다.

Heine 등(2001)의 연구에서 일본의 대학생이 보여준 자기개선적 행위 양상(즉 실패조건에서 과제수행 시간이 더욱 길게 나타나는 현상)은 본 연구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LSE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보인 행위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Heine 등의 자료에서 일본인들의 경우에 자존감을 측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들의 자존감은 평균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 이들은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LSE 사람들의 경우에 자기고양 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그렇다고 자기개선적 경향이 나타난 것도 아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남들에게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성을 재는 인상관리 척도(Paulhus, 1984)를 치룬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두 집단의 사람들에게서 아무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에게 자만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위하여 LSE 사람들이 자기고양적 평가를 덜 하거나, 자기고양적 과제수행을 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LSE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적응력이 떨어지고, 학업 등의 성취 장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Taylor & Brown, 1988 등)들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문화성향(Singelis et al, 1995)을

측정하여 참여자를 홀로성향자(개인주의자)와 두레성향자(집단주의자)로 구분한 후에 과제수행 시간을 비교하였으나 집단간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성향을 측정하여 확연히 구별되는 두 성향집단을 뽑아서 연구를 수행하였다면(조궁호, 2003 등의 연구가 그 예임) 집단간 차이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준거변인으로 삼아서 집단을 추출하였기에 이 같은 문화성향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사회에서 자존감의 연구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고저에 따라 상황의 변화가 자기고양 현상의 발현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존감 척도는 국내외의 심리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존감 척도(Rosenberg, 1965)로서, 이는 평가자 자신이 스스로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만족감을 평가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척도평가치가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좋게 보는 자기고양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척도는 개인주의 문화권의 자존감을 측정하기에 어울리며, 개인의 자기고양적 행위가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문화권에서는 진정한 자존감을 측정해 내지 못할 수 있다(Heine et al., 1999).

구미에서 이루어진 자존감 연구들은 HSE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자신감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수행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과제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에 의해 타격을 덜 받고, 보다 잘 해내려는 동기가 강함을 보이고 있다(Taylor & Brown, 1988). 아울러 자신이 느끼는 좋은 정서를 더 즐기는 경향을 보인다(Wood, Heimpel, & Michela, 2003). 그러나 LSE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실패의 경험을 두려워하며, 부정적인 피드백에 심하게 반발하며, 자기보호적인 인지 및 행동 양상을 보인다(Aspinwall & Taylor, 1993; Baumeister, Tice, & Hutton, 1989).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존감 관련 연구들에서도 자존감의 측정을 위해서 대부분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들 연구 대부분은 자존감과 적응, 동기, 정서, 건강 등의 관련성을 설문 형태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HSE 사람들이 LSE 사람들보다 거의 모든 면에

서 바람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구의 연구결과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박재우 · 김지혜, 2001; 최미례 · 이인혜, 2003 등).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더해서 이들이 과제에 임하는 행동 양상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HSE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자기고양 경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다. LSE 사람들은 그러한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양상은 부분적으로 예견된 것이지만 흥미로운 연구를 촉구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HSE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이들이 현저하게 자기고양적 행위를 보인다면 이는 우려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들에게서 인내, 수행(修行) 및 도전의 가능성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과제수행이 끝난 후에 자신이 수행(遂行)한 검사가 요구하는 정신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물었을 때 HSE 사람들은 성공조건에서는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3.25) 실패조건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2.67). 이는 LSE 사람들이 보인 양상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비록 통계적 유의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F(1, 26)=2.39, p<.14$, HSE 사람들의 자기고양이 정당화 인지(認知)를 동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이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HSE 사람들의 양상이라면 이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자존감을 향유하려는 경향은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만족감이라는 혜택을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잘하는 것만 하려들고, 긍정적인 피드백만을 선호한다면, 중요한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인내하거나, 실패시 경험하는 불쾌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출 가능성은 적게 될 것이다. 이들은 자기가 좋아서 과제를 수행하기 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율성과 내발적 동기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으며(Ryan & Deci, 2000), 장기적으로 환경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더불어 주위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가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연구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국내에서 HSE와 LSE의 특성에 대한 비교연구 시에 설문에 의존하기 보다는 실험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다. 최근에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는 과제수행에서 반복

되는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 HSE 사람들은 LSE 사람들에 비해 그 과제를 쉽게 포기하고 다른 활동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Di Paula & Campbell, 2002). 그러나 LSE 사람들은 반복된 실패상황에서도 과제에 매달리는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SE 사람들은 LSE 사람들에 비해서 더 목표지향적 활동을 보이며, 자기조절에서 뛰어나며 자신의 능력과 과제의 진척관계에 대한 파악이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양상이 국내의 연구에서 나타날지는 흥미롭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는 그 재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또 다른 연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중에는 암묵적인(내적인) 자존감이 강한 사람과 내적인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구분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Jordan, Spencer, Zanna, Hoshino-Browne, Correll, 2003). 즉 명시적 자존감은 높지만 암묵적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특히 자기애적인 경향이 강하고, 자아방어적인 행위를 많이 취하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HSE 사람들 중에는 암묵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들의 전반적인 반응양상이 암묵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반응양상과 흡사하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국내에서 HSE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인에게서 진정한 자존감이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이며, 어느 문화권에서건 적절한 수준의 자존감은 가치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Brown, 1998; James, 1890). 다만 문화의 특색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평가의 소재가 문화권마다 다르다고 보겠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일대일 대응관계로 놓고 개인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신장을 선(善)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존감은 자신의 개인적 성취, 독창성, 독립성에 근거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고, 조직과 관계 속에서 성원의 역할, 의무, 헌신, 관계의 화목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존감은 이러한 면에서의 수행과 그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근거할 것이다(조궁호, 1993, 2002; 최봉영, 1998; 한규석·최송현·정욱·배재창, 2004; Fiske, et al, 1998; Markus & Kitayama, 1991, 1994). 여러 연구들이 이같이 자존감의 문화적 기반이 다

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군의 연구자들(Joseph, Markus, Tafarodi, 1992)은 남자와 여자의 성장환경에서 각기 중시되는 사회적 평가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자존감 척도 점수에서 차이가 없어도 그 기반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실험 상황에서 보인바 있다. 캐나다의 연구자(Heine & Lehman, 1995, 1997)들은 백인들에게서 자존감이 집단주의적 성향과 역상관의 관계를 갖지만, 일본인들에게서는 역상관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였다. 또한 미국인이 느끼는 행복감은 자부심, 우월감 등의 사회유리적 정서와 높은 상관을 지니지만, 일본인에게서 행복감은 동정심, 존경감 같은 사회몰입적 정서와 더 깊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tayama, Markus, Kurokawa, & Negishi, 1993; 조궁호, 2002에서 재인용). 조궁호(2002)는 집단중심 성향을 지닌 학생들이 남들을 배려하는 점에서 뛰어나다고(상위 25%) 자평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과 다르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영역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세영(1996)은 자존심이 높은 두레성향자들은 낮은 두레성향자들에 비해서 자신이 사회성이 좋다고(상위 25% 대 50%) 평가하지만, 창의성이나 운동능력, 학업능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평가함으로써 두레성향자들의 자부심은 사회성에 근거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한국인에게서 작용하는 자존감을 측정하는 척도가 별도로 개발되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자기고양 현상의 문화비교적 분석

본 연구는 문화비교적 관점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Heine et al., 2001) 절차를 복제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졌기에 그 결과를 기존의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지닌 특징이 기존의 연구에 참가하였던 캐나다와 일본 대학생들과 다양한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계적인 검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반응의 전반적인 양상만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과제수행 시간의 평균치(자존감 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함)를 Heine 등(2001)의 연구결과와 같이 제시한 것이 그림 2이다. 흥미롭게도 한국 대학생들이 일본 대학생들보다는 오히려 캐나다 대학생들과 매우 유사한 반응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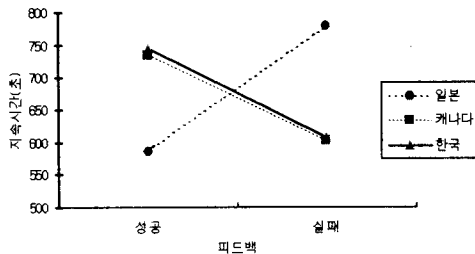


그림 2. K-RAT 과제 수행 시간의 삼국 비교. 일본과 캐나다 결과는 Heine 등(2001)에서 가져온 것임

본 연구의 양상이 일반 대학생들의 양상이라고 상정한다면 이 같은 반응 양상은 기존의 문화비교 연구들이 제시하는 양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서 흥미롭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몇몇 연구들에서 문화비교 이론들이 제시하는 것과는 반대의 양상을 보고하는 것들이 드물지 않다. 공수자와 한규석(1996)은 인도인과 미국인의 귀인 양상을 비교한 연구(Miller, 1984)를 똑같은 방식으로 국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결과 한국인이 미국인과 비슷한 정도로 성향귀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캐나다와 일본인의 내집단고양 양상을 비교한 연구(Heine & Lehman, 1997)는 캐나다인이 개인고양 및 내집단고양 양상을, 일본인이 내집단비하 양상을 보임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절차를 적용한 국내 연구에서는 두 라이벌 대학생들이 내집단고양 양상을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정옥 · 한규석, 2002). 또한 서구인에게서 현저히 나타나는 비현실적 낙관론을 문화비교적으로 조사한 Heine와 Lehman(1995)의 연구를 국내에서 이누미야 등(1999)이 복제한 연구 결과는 한국인이 일본인과 달리, 캐나다인과 비슷한 수준의 비현실적 낙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고양의 한 발현 양상인 수월성착각 현상(better than average; 본인의 능력이 일반인 평균보다 비범하다고 보는 경향)이 구미에서는 두드러지지만, 일본인에게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보고 되었다(Heine & Lehman, 1997b),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한 자기평가의 9문항(창의력, 협동심, 독립심, 유머감각, 용모, 이해심, 체력조건, 의타심, 어울림)의 결과는 자존감 고저와 상관없이 체력조건, 의타심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자신을 평균보다 더 낫다고 평가하였다. 물론 그 강도는 구미인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나 경향성은 나타

나고 있다. 유사하게 조국호(2002)는 한국의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에 자신의 능력(지능, 기억력, 운동능력)과 개체성(독립성, 자기주장성 등)의 평가에서 수월성 착각 현상이 두드러졌으나,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배려성(동정심, 따뜻한 마음씨 등)의 평가에서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또한 김세영, 1996; Kobayashi & Brown, 2003). 이 같은 양상은 집단주의자들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자기겸양적 평가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집단주의 문화에 친화적인 특성에서는 오히려 자기그 양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인을 서양인들과 비교한 여러 연구들에서 한국인의 특징이 백인들과는 현저히 구분되는 양상임을 보이고 있다(Choi & Nisbett, 1998, 2000; Choi, Dallal, Kim-Prieto, & Park, 2003; Rhee, Uleman, & Lee, 1996). 그러나 한국을 다른 동아시아의 국가들과 직접 비교한 심리학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 최상진과 유승엽(1994)은 일본인과 한국인의 우리성(情) 의식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는 일본인의 우리성이 동거 및 활동을 같이 하는 경우에 형성되고 작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한국인의 우리성이 혈연을 중심으로 작용하는 특성과 차이가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한국과 일본이 분류되고 있지만, 그 성격이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문화심리학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할 소재를 던져주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집단주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Hofstede (1980)의 비교에서 나타난 남성성-여성성의 문화 분류차원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일본은 매우 남성적인 반면에 한국은 여성적인 문화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누미야 등(1999)은 한국과 일본의 내학생을 대상으로 비현실적 낙관론의 정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한국인이 독립적 자기관이 더욱 높으며, 비현실적 낙관성은 상호협조적인 자기관보다는 독립적 자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즉 한국인들은 일본인에 비해서 비현실적 낙관론을 강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자기고양적 행위 양상은 이같이 한국문화에서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모두 높은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흔히들 한국인은 일본

인에 비해서 자기주장이 뚜렷하며, 활발한 성격을 보인다고 평을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 같은 세간의 평이 일말의 사실성을 담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과제수행의 상황에서는 자기고양적 행위를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고양적 경향은 대학생들의 개인주의화 양상(한규석·신수진, 1999)을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최근의 한 연구는 자신의 성격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타인들이 자신에 대하여 하는 평가보다 부정적으로 하는 자기겸양성을 보이고 있다(고재홍·전병우, 2003). 그러나, 설문에 대한 응답은 사회적 바람직성(즉, 자기겸양)에 대한 관심이 작용할 가능성 때문에 응답편향에서 자유로운 실제적인 행동관찰이 가능한 다양하게 시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응답편향으로 오염되지 않은 과제수행 행위에서는 학생들이 자기고양적 양상을 뚜렷히 보이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문화의 암묵적 인성관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탐구도 흥미로운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Heine 등(2001, 연구 3)의 연구결과는 캐나다인들은 인성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실체론자(entity theorists)이며, 일본인들은 노력에 의해서 인성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가변론자(incremental theorists)임을 시사하고 있다. 실체론자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향이 고정된 것이어서 자신이 잘 해 낼 수 있는 과제와 적성을 탐색하여 이를 잘하려 들며, 가변론자들은 자신이 결여한 능력이나 자질이라도 노력하면 잘 해 낼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어 주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행을 보인 과제에 매달릴 수 있다(Chiu, Hong, & Dweck, 1997; Dweck, Hong, & Chiu, 1993 참고). 전통적인 교육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과 비슷하게 가변론적 인성관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동아시아에서는 능력과 성취는 노력의 결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실체는 노력의 부족 탓이며, 만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인성관의 차이가 동아시아 학생들이 미국의 초등학교들에 비해 기초학력이 뛰어난 현상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Holloway, 1988; Stevenson & Stigler, 1992).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생들의 암묵적 인성관을 반영하는지 아닌지를 밝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기고양 동기의 보편성 논쟁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그 동기의 존재는 보편적인 양상이나, 그 발현 양상이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받는다는 주장(Kobayashi & Brown, 2003; Kurman, 2003 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 고재홍·전병우 (2003). 두 자기평가 편향과 자존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7(2), 1-16.
- 공수자·한규석 (1996). 한국인의 인물과약경향. 문화비교적 관점의 조명. 국제한국학회지, 1, 89-104.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 문화 비교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세영 (1996). 홀로성향자와 두레성향자의 자존심 수준에 따른 자기평가와 단어회상 비교.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 박재우·김지혜 (2001). 직무스트레스, 자존감, 완벽주의가 직장인의 불안 증상 및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4), 697-710.
- 이누미야 요시유키·최일호·윤덕환·서동호·한성열 (1999).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에 있어서의 비교 문화 연구 :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1), 183-201.
- 정 옥·한규석 (2002). 한국사회에서의 집단자존심 분석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문화적 조명. 사회 및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71-78.
- 조금호 (1993).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 대인평가 이원 모형의 확대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7(1), 124-149.
- 조금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5(1), 104-139.
- 조금호 (1997). 문화유형에 따른 정서의 차이 : 한국인의 정서 이해를 위한 시론. 심리과학(서울대학교 심리과학 연구소), 6(2), 1-43.
- 조금호 (1999). 문화유형에 따른 동기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2), 233-273.

- 조공호 (2000). 문화유형과 동기의 차이 : 한국인의 동기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2), 83-122.
- 조공호 (2002). 문화성향과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6(1), 91-111.
- 조공호 (2003). 문화성향과 통제양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7(2), 85-106.
- 조공호 · 명정완 (2001). 문화성향과 자의식의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2), 51-67.
- 조공호 · 김은진 (2001). 문화성향과 동조행동.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1), 139-165.
- 최미례 · 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4.
- 최봉영 (1998). '사회' 개념에 전제된 개체와 전체의 관계와 유형. 동양사회사상, 1집, 79-104.
- 최상진 · 유승엽 (1994). 한국인과 일본인의 '정'에 관한 심리학적 비교분석. 인문학 연구 제21집,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한규석 (1991).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10), 1-19.
- 한규석 (2002). 한국적심리학의 전개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1(2), 67-95.
- 한규석 · 최송현 · 정 옥 · 배재창 (2004). 한국사회에서의 사람 판단의 준거 : 된 사람과 난 사람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8(1), 23-39.
- 한규석 ·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Aspinwall, L. G., & Taylor, S. E. (1993).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direction, threat, and self-esteem on affect, self-evaluation, and expected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708-722.
- Baumeister, R. F., Tice, D. M., & Hutton, D. G. (1989).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s and personality differences in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57, 547-579.
- Berry, J., Poortinga, Y., segall, M., & Dasen, P. (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nd, M. H., & Cheung, T. (1983). College students spontaneous self-concept : The effect of culture among respondents in Hong Kong,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4, 153-171.
- Brown, J. D. (1998). *The self*. New York : McGraw-Hill.
- Brown, J. D., & Kobayashi, C. (2002). Self-enhancement in Japan and America. *Asian Journal of Psychology*, 5, 145-168.
- Chiu, C., Hong, Y., & Dweck, C. S. (1997). Lay dispositionism and implicit theorie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9-30.
- Choi, I., & Nisbett, R. E. (1998). situational salience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orrespondence bias and the actor-observer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949-960.
- Choi, I., & Nisbett, R. E. (2000). The cultural psychology of surprise: Holistic theories and recognition of contradi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890-905.
- Choi, I., Dalal, R., Kim-prieto, C., & Park, H. (2003). Culture and judgement of causal relev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46-59.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 Freeman.
- Crocker, J., & Park, L. E. (2004). The costly pursuit of self-esteem. *Psychological Bulletin*, 130, 392-414.
- Di Paula, A., & Campbell, J. D. (2002). Self-esteem and persistence in the face of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711-724.
- DuBois, D. L., & Flay, B. R. (2004). The healthy pursuit of self-esteem: Comment on and alternative to the Crocker and Park (2004) 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30, 415-420.

- Dunning, D. (1995). Trait importance and modifiability as factors influencing self-assessment and self-enhancement 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1297-1306.
- Dweck, C. S., Hong, Y., & Chiu, C. (1993). Implicit theories :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likelihood and meaning of dispositional in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644-656.
- Fiske, A.,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 2. pp. 915-981.
- Greenwald, A. G. (1980). The totalitarian ego : Fabrication and revision of personal history. *American Psychologist*, 35, 603-613.
- Han, G., & Park, B. (1995). Children's choice in conflict :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individualism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6, 298-313.
- Heine, S. J., & Lehman, D. R. (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6-607.
- Heine, S. J., & Lehman, D. R. (1997a).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enhancement : An examination of group-serving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68-1283.
- Heine, S. J., & Lehman, D. R. (1997b). Culture, dissonance, and self-affirm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389-400.
- Heine, S. J., & Lehman, D. R. (1999a). Culture, self-discrepancies, and self-satisf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915-925.
- Heine, S. J., Kitayama, S., & Lehman, D. R. (2001). Cultural differences in self-evaluation : Japanese readily accept negative self-relevant inform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 434- 443.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 766-794.
- Heine, S., Kitayama, S., Lehman, D., Takata, T., Leung, E., Leung, C., & Matsumoto, H. (2001). Divergent consequences of success and failure in Japan and North America : An investigation of self-improving motivations and malleable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599-615.
- Hermans, H., & Kempen, H. (1998). Moving cultures : The perilous problems of cultural dichotomies in a globalizing society. *American Psychologist*, 53, 1111-1120.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 :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 sage.
- Holloway, S. D. (1988). Concepts of ability and effort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8, 327-345.
- James, W.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 Dover Publications.
- Jordan, C. H., Spencer, S. J., Zanna, M. P., Hoshino-Browne, E., & Correll, J. (2003). Secure and defensive high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969-978.
- Josephs, R. A., Markus, H. R., & Tafarodi, R. W. (1992). Gender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391-402.
- Kitayama, S., & Markus, H. (1994). *Emotion and culture :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C. : APA.
- Kitayama, S., Markus, H.,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45-1267.
- Kobayashi, C., & Brown, J. D. (2003). motivation and manifestation : The cross-cultural expression of the self-enhancement motive. *Asian Journal of Social*

- Psychology*, 6, 85-88.
- Kudo, E., & Numazaki, M. (2003). Explicit and direct self-serving bias in Japan : Reexamination of self-serving bias for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 511-521.
- Kurman, J. (2001). Self-enhancement : Is it restricted to individualistic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705-1716.
- Kurman, J. (2003). Why is self-enhancement low in certain collectivist cultures? : An investigation of two competing explanatio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 496-510.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Emotion and culture :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C. : APA.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 of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iller, J. G. (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 Paulhus, D. L. (1984). Two-component models of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598-609.
- Pyszczynski, T., Greenberg, J., & LaPrelle, J. (1985). Social comparison after success and failure : Biased search for information consistent with a self-serving conclu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1, 195-211.
- Pyszczynski, T., Greenberg, J., Solomon, S., Arndt, J., & Schimel, J. (2004). Why do people need self-estee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0, 435-468.
- Rhee, E., Uleman, J., & Lee, H. (1996). Variation in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by ingroup and culture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037-105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Y : Basic Books.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Sabat, S. R., Fath, H., Moghaddam, F. M., & Harre, R. (1999). The Maintenance of self-esteem : Lessons from the culture of Alzheimer's sufferers. *Culture and Psychology*, 5, 5-32.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 The Journal of Comparative Social Science*, 29, 240-275.
- Steele, C. M. (1988). The psychology of self-affirmation : Sustaining the integrity of the self.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 261-302). Hillsdale, NJ : Erlbaum.
- Stevenson, H. W., & Stigler, J. W. (1992). *The learning gap : Why our schools are failing and what we can learn from Japanese and Chinese education*. New York.
- Stigler, J. W., Smith, S., & Mao, L. (1985). The self-perception of competence by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 1259-1270.
- Takata, T. (2003). Self-enhancement and self-criticism in Japanese culture : An experimental anal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 542-551.
- Taylor, S. E., & Brown, J. D. (1994). "Illusion" of mental health does not explain positive illusions. *American Psychologist*, 49, 972-973.
- Taylor, S. E., & Lobel, M. (1989). Social comparison activity under threat : Downward evaluation and upward contacts. *Psychological Review*, 96, 569-575.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riandis, H.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l : Westview Press.
- Triandis, H.,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M.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Wood, J. V., Heimpel, S. A., & Michela, J. L. (2003). Savoring versus dampening : Self-esteem differences in regulating posi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566-580.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Self-Enhancing Tendency

Wook Jeong Gyuseog Ha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had two purposes. First, it attempted to replicate conceptually in Korea the cross-cultural study conducted by Heine, Kitayama, Lehman, Takata, Ide, Leung, & Matsumoto(2001). To do so, we employed the level of self-esteem (SE) as a moderating variable in self-enhancing behavior. Second, it investigated whether the Koreans would show the Japanese cultural pattern of behavior reported in the previous study (Heine et al., 2001) in which the Japanese students showed self-improving motivation while the Canadian students showed self-enhancing motivation. Three versions, varying in difficulty levels, of Korean Remote Association Test (K-RAT) were constructed. Rosenberg's self-esteem(SE) scale was used to select 24 high SE people and 24 low SE among 120 university students of both sexes. Half of each SE groups was randomly assigned to the difficult K-RAT test (Failure condition) and half was to the easy K-RAT test (Success condition). Following the performance feedback of either success or failure, the subjects were given the opportunity to work on another K-RAT (medium difficulty level) up to 15 minutes. The persisting time on the second K-RAT was measured as the major dependent variable. As hypothesize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of SE level and feedback condition was found, $F(1, 44)=5.62, p<.05$. The pattern showed that the high SE people persisted more in the success feedback than in the failure feedback but the low SE people persisted about equally in both feedback conditions. So, the Canadian pattern of Heine et al' study was obtained among the high SE, but the Japanese pattern was not observed. Taken together, the overall pattern shown by the Korean students resembles more of Canadian than of Japanese. The results indicate the validity of SE as a moderator of self-enhancing tendency and warn against the wholesale treatment of East Asian culture.

Key words : self-esteem, self-enhancement, self-improvement, cultural psychology, cross-cultural psychology, K-RAT, moderator

원고접수 : 2005년 1월 7일
심사통과 : 2005년 2월 15일